

# 보도자료

이 자료는 4월 3일 23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한국은행,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 (개요) 한국은행은 4월 3일 국제결제은행(BIS), 5개 기축통화국 등 7개국\* 중앙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IIF)와 공동으로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인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멕시코

○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를 활용하여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임

○ 특히, 그간 각국이 진행해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국가간 지급결제(예: 해외송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

—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 표준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옴

○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5대 기축통화국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참가국에서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계획으로 BIS의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개념검증(PoC)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시스템의 핵심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구현한 초기 시제품을 의미

- (의의) 글로벌 금융인프라를 만드는 새로운 스탠다드 설정 작업에 한국이 처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이를 통해 한국의 민간 기관이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한국 참여 배경) 동 프로젝트에 한국이 기축통화국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이 그동안 진행해온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하는 CBDC 연구·개발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한국이 주요 무역국이자 IT 강국으로서 무역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였음
- (향후 계획)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IIF와 함께 국내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고,
 

동 프로젝트가 외환, 금융, 통화, 지급결제 등 금융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 (주요 일정) 추후 BIS 및 IIF는 프로젝트 참가국 민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참가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임
  - \* 구체적인 참여 지침 및 요건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참여를 위해 국제금융협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BIS 공동 보도자료 국문 번역본” 및 “<별첨> BIS 공동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

---

문의처 :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 팀장 신성환, 과장 장하주

Tel : 750-6511, 6516 Fax : 750-6519 E-mail : [bokcbdc@bok.or.kr](mailto:bokcbdc@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23, 4064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의 보도자료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이 국문 번역본보다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은행과 은행권, 토큰화 기술을 활용해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Agorá) 착수**

- 아고라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에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을 토큰화<sup>1)</sup>하여 통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함
- 토큰화 및 스마트계약을 통해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기능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
- 아고라 프로젝트의 우선 과제는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의 속도와 금융 무결성<sup>2)</sup>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임

국제결제은행(BIS)과 7개 중앙은행은 금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토큰화를 통한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고라(그리스어로 '시장, 광장')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영국의 중앙은행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국제금융협회(IIF)를 통해 모집될 다수의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통합원장<sup>3)</sup> 개념에 기반하여 설계되며, 토큰화된 은행예금과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민관 공동의 핵심 금융플랫폼에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

1) 토큰화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 기록 가능한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BIS)  
 2) 금융무결성(financial integrity):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법과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역자주)  
 3) 통합원장(unified ledger): 토큰화된 화폐는 물론 토큰화된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서 발행 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3.6월)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2계층 구조<sup>4)</sup>를 유지하면서도 통화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계약과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비실용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형태의 거래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주요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지급결제 분야, 특히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해보고자 한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에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 운영시간 및 표준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층층이 쌓여 있다. 이에 더해 금융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예: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의 경우 중개기관의 수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함에 따라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의 수장인 Cecilia Skingsley는 “오늘날 어떤 거래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회계원장, 데이터 레지스트리<sup>5)</sup>가 또다른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디지털 금융인프라 상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데 모아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단지 기술 테스트만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가국에서 실제로 국가간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함께, 각 통화의 구체적인 운영, 규제 및 법적 조건을 적용하여 기술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경제 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토큰화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 유지 기능과 기록의 이전을 규율하는 규칙 및 논리(rules and logic) 기능을 결합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은행이 핵심인 2계층 통화시스템이라는 검증된 기반 위에서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무결성과 통화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4) 2계층 통화시스템(two-tier monetary system): 오랜 금융의 역사를 통해 확립된 중앙은행-상업은행의 이중구조로,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발행(계좌 제공)함으로써 개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예금의 지급준비 및 은행간 자금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준비금을 발행(계좌 제공)함으로써 통화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역자주)

5) 주로 데이터에 대한 정보(메타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역자주)

안전장치를 희생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BIS 혁신허브의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실험적인 성격을 지니며 글로벌 중앙은행 커뮤니티가 활용 가능한 공공재를 탐색,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향후 일정**

국제결제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조사하는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민간 참가기관의 모집 및 중개자 역할은 국제금융협회가 수행하며, 7개 참가국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참여 지침 및 요건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며, 참여를 위해 국제금융협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